



COVID-19 시대를 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

나남진 목사 (아프리카미래재단 USA 사무총장)

COVID-19시대가 심각하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지사 Gavin Newsom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 때문에 지난 13일 교회를 포함한 모든 실내 엑티비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화된 지 다섯 달이 되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언제 끝날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 7월 21 일을 기준으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397만 명 감염에 144,000명 사망했고, 세계적으로 1,480만 명 감염에 614,000명이 사망했다. 자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세계의 문명사적 전환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예수의 오심을 기준으로 역사를 BC(Before Christ), AD(Anno Domini, in the year of our Lord)로 나누었듯이, 코로나 전후를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나누게 될 것이다.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다른 삶의 형태를 보일 것이다. COVID-19를 체감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사회적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

이런 시기에 교회는 목회와 교육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한국교회와 한인교회에서 모든 예배와 교육과 훈련은 '모이는 교회' 개념에서 이루어져 왔다. 교회는 훌어진 삶의 자리에서 부른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모이는 교회'와 훌어지는 교회' 개념이 함께 가야 한다. 그 동안 교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훈련하고, 봉사했지만, 이제 훌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훈련하고 서역할 수 있어야 한다. '훌어지는 교회'는 첫 교회 예루살렘교회의 모습이고, 오늘날과 같은 다원사회 경향이며, 포스트코로나 사회에 요구되는 신앙과 삶의 패턴이기도 하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만인 제사장직'을 주장하였다. 이는 그들의 창안이 아니라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였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부른다(벧전 2:9). 이 '왕 같은 제사장'은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부터 우리의 관심이 교회 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곧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학교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는 삶의 한 영역, 한 직업, 한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아브라함 카이파가 말하듯이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영역은 이 땅에 한 치도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교회당에 모이기를 힘썼다. COVID-19시대는 우리의 이런 신앙생활에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제 모이는 하나님의 교회공동체가 훌어진 여러 공동체로 확산되는 것이다. 교회는 이런 환경에 맞는 새로운 예배와 교육과 훈련 방법들을 도입해야 한다. COVID-19는 우리를 비대면 사회로 이끌고 있다. 신앙과 교육에는 대면 만남의 하이 터치를 필요로 하지만, 이미 회사에서, 학교에서 경험하듯이 소프트한 비대면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도 가능하게 된다. 이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비대면 사회에서 목회도 새벽기도회나 소그룹 신앙강좌, 교사훈련, 교사기도회, 집단 상담과 개인상담 등 모든 교육과 훈련이 zoom으로 가능하다. 함께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곧바로 녹화화면을 보내줄 수도 있다.

COVID-19시대로 함께 모이지 못하던 경험이 습관이 되면 향후 출석문화와 함께 예배를 상대화 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도 가져오겠지만, 준비하는 교회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과 훈련과 들봄의 기회가 된다. 교사나 리더훈련의 경우 책이나 자료를 집에서 읽게 하고, zoom을 통해 강의와 토의, 나눔을 가진다면 큰 효과를 얻을 것이다. 이를 목회자와 교사가 성도와 학생을 둘보는 일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선교와 사회봉사로 적용할 경우, 이전보다 더 필요들이 많은 선교지와 직접적인 소통도 가능하게 되고, 더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



아프리카마라리안 산전후원

파파카스카로

인구의 75%가 오지에 거주하여 5km 이내 의료시설이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환자가 54%인 파파카스카로의 현실 속에 찾아가는 오지 이동진료 및 오지통합의료전문의 양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지이동진료는 2006년부터 시작되어, 2020년까지 114회를 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동이 어려운 오지의 환자들이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다양한 질병 케이스를 치료함으로써 현지 의료진의 역량을 강화하여 현지 의료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오지 이동진료가 어렵게 되어, 오지 통합의료전문의 양성 및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AFF 가족

이재훈&박재현 선교사 (지부장)



남아프리카공화국 COVID-19 특별지원 사업 실시

아프리카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던 한국 AFF가 아프리카 55개국 가운데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추천, '코로나19 대응 취약계층 긴급 생계지원 및 코로나 예방사업' 참여를 제안해 응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4월 21일에 15,000달러를 긴급 지원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지부(지부장 이원준 선교사)에서 현지 상황과 필요한 물품을 확인하고, 요하네스버그와 케이프타운 지역에 800세대에 생계물품과 코로나 19 예방 지원 물품을 분배하였다. AFF USA에서는 이와 별도로 이사장 김홍식 장로의 자정헌금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김경환 선교사에게 2,000달러를 보내어 긴급사역을 지원하였다.



COVID-19 특별헌금 담지

COVID-19 사태가 계속되면서 보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아프리카가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본부의 제안에 따라 아프리카미래재단(AFF) 미국법인이 남아공화국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여러 개인과 교회와 단체가 현금을 보내왔다. 이사장 김홍식 장로가 10,000달러를, Global Medical Mission Alliance(GMMA: 대표 Peter Jung)가 올해 개최 예정이던 컨퍼런스를 개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아프리카를 위해 사용해 달라고 3,000달러를 보내왔다. 피아모니어 악국(베기호)과 Mission Hands(성기진)도 각 1,000달러를 보내왔다. 오렌지카운티 한인교회에서 COVID-19 특별지원사업으로 1,000달러를 보내왔다.

아프리카미래재단 U.S.A

지부

New York/New Jersey

주소: 1Executive Drive Suite LL100
Fort Lee, New Jersey 07024

전화: 201-218-2460



지부

Washington DC

주소: 9198 Red Branch Rd. #H
Columbia, MD 21045

전화: 301-821-7214

분부
Los Angeles

주소: P. O. Box 5362 Fullerton CA 92838
전화: 714-732-1484



아프리카를 꽂피우는 손길, 함께해 주세요.

기관번호(FEIN)

■ 83-4396614

Africa Future Foundation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하는 방법

■ 수표 보내실 때

- 받는 사람: Africa Future Foundation

- 주소: Africa Future Foundation

P.O.Box 5362 St. Fullerton, CA 92238

714-732-1484 (미국) +82)2-6248-9182 (한국)

aff@africaff.org

www.africaffenglish.modoo.at (영어)

www.africaff.org (한국어)

아프리카미래재단 africafuturefoundation

■ 송금하실 때

- 은행: Bank of America

- 계좌번호: 3251 2035 5776

- Routing 번호: 121000358

- SWIFT 코드: BOFAUS3N



선한 청지기들 2020. 4. 1 ~ 20. 6. 30 / 재정보고

김재선 김정미 김홍식 수지 박 예원 송영 송은석 신영애 마야를 양 양예종 유재경 이승숙 이종호 한수경 이홍철 장국현 정진걸 최은석 최의석 황길남 허결신 Euiwon Chough Andrew/SoYoung Kim Jin Hee Kira Tae Kwun Michelle Lim Hyung Pak Moses Park Michael Yang Johng Yahng David Yi GMMA 북가주조이풀교회 새벽이슬교회 OC한인교회 OC살풀교회 Jin Chul Jhung Kiho Pai Ester Lee Livingstone Home Health Inc.

* 이름이 누락되신 경우, AFF 사무실(714-732-148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COVID-19 시대의 목상 온혜의 실로 꿰어진 연속

김홍식 이사장 (아프리카미래재단 USA)

평온한 시절에는 옆에 있어 수고해주어도 그런 것으로 여겼고, 보고 싶을 때 언제나 볼 수 있었기에 소중한 줄 몰랐던 존재들이 감사하고 그리워진다. 당연한 것이 절절하고 간절해진 시절이 되고 보니 지금까지 지내왔던 시간들이 온혜의 실로 꿰어졌던 연속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받은 사랑을 필요한 이들에게 당연히 돌려주어야 할 시간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힘든 학생이 아니고 온혜를 생각할 때 내면에서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기쁨이다.

수입	(단위: \$)
전기아월	42,261.51
일반현금	5,825
COVID-19 특별현금	14,000
자경현금	3,800
비전트립 참가비	12,000
총수입	77,886.51
자출	
사업비	22,534
마다가스카르 자경현금	3,534
남아프리카공화국 COVID-19	15,000
남아프리카공화국(김경환)	2,000
선교사 특별 지원	2,000
행사비/비전트립(참가비) 반환	2,257.66
행정비	856.66
사무/소모품비	253.81
회보 인쇄/발송비 등	472.85
POBox 사용료(1년)	130.00
은행수수료	165.00
자출총액	25,813.32
잔액(차기아월)	52,073.19